

KOCHAM

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3월 26일(수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1월중 주택가격 전월대비 0.5% 상승...예상 하회
- 2) 1월중 대도시 주택 가격 상승세, 전달보다 둔화
- 3) 미국, 작년 3천개 기업에 해킹 피해 통보...첫 수치 공개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S&P, 브라질 신용등급 BBB-로 강등...등급전망 '안정적'
- 2) 러시아서 700억 달러 증발...경제 타격 '눈덩이'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日 스미토모미쓰이, RBS시티즌스 인수 타진
- 2) 삼성, 일본내 스마트폰 특허 소송서 애플에 패소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1월중 주택가격 전월대비 0.5%상승...예상 하회

- 지난 25일(현지시간) 미국연방주택금융청(FHFA)은 계절조정을 거친 1월중 미국주택가격지수(HPI)가 전월 대비 0.5% 상승하였다고 발표
-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, 하지만 전년동기비 7.4% 상승한 결과
 - HPI는 지난 2007년 4월대비 8.0%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, 2012년 2월을 저점으로 지난 24개월중 23개월 간 상승세를 유지
- 한편, 12월 HPI 확정치는 기존 0.8% 상승에서 0.7% 상승으로 하향 조정됨

2) 1월중 미국내 대도시 주택 가격 상승세, 전달보다 둔화

- 지난 3월25일(현지시간) S&P와 케이스쉴러는 1월중 미국내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지수가 전년동기비 13.2% 상승했다고 발표
 - 이는 1월중 주요 대도시 집값 상승세가 전달대비 둔화된 결과
 - 아울러 지난 12월중 수치는 기존 13.42% 상승에서 13.38%로 수정, 전월비 0.85% 상승하여 전망치 0.6%와 이전치 0.74%(수정치)를 모두 상회
- 도시별 주택가격은 주요 도시 20곳 모두 전년동기비 상승
 - 라스베이거스 24.9%, 샌프란시스코 23.1% 상승, 클리블랜드는 가장 낮은 상승세인 4% 상승을 기록
- 한편, 전문가들은 금년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

3) 미국, 작년 3천개 기업에 해킹 피해 통보...첫 수치 공개

- 지난 3월25일(현지시간)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(WP)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해킹 피해를 알려준 기업이 3천 개 이상이라고 보도
 - 해당 기업은 지역 은행부터 대형 방위산업체까지 광범위한 규모로 지난해 말 고객 1억 1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유통업체 ‘타깃’ (Target)도 포함
 - 사이버보안 부문에 1천 명의 인력을 보유한 연방수사국(FBI)에서 약 2천 개 기업에 전화나 인편으로 해킹 피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
- WP는 실제로 해킹으로 인해 미국 기업과 고객이 입는 피해가 매년 1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S&P, 브라질 신용등급 BBB-로 강등...등급전망 '안정적'

- 지난 24일(현지시간)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(S&P)는 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을 'BBB'에서 'BBB-'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
 - 'BBB-' 등급은 S&P가 '투자 적격'으로 분류하는 10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브라질의 부진한 경제성장과 재정정책 확대에 따른 채무규모 증가로 인해 이번 결정을 단행
- 한편, S&P는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2.3%에서 금년 1.8%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
 - 다만 브라질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은 '부정적'에서 '안정적'으로 높여 현재로서는 등급을 추가로 강등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암시

2) 러시아서 700억 달러 증발...경제 타격 '눈덩이'

- 지난 24일(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서방의 대(對)러시아 경제제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빠른 속도로 해외 자금이 이탈, 러시아 경제가 받을 타격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
 - 미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700억 달러 규모로 이는 지난해 전체 유출 규모 63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수치
 - 서방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제재 범위를 넓히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러시아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
- 한편, CNBC는 지난 24일(현지시간) 올해 들어 지금까지 13% 급락한 러시아 증시가 향후 추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음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日 스미토모미쓰이, RBS시티즌스 인수 타진

- 지난 3월24일(현지시간) WSJ은 최근 일본의 스미토모미쓰이 파이낸셜그룹(SMFG)과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(RBS)가 RBS의 미국 소매 은행 자회사인 RBS시티즌스(RBS Citizens) 인수를 위한 초기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도
 - RBS시티즌스는 미국 동북부와 중서부 12개 주에서 1400여개 지점을 운영, 자산 규모는 1,220억 달러 규모에 달함
- WSJ는 이 협상이 합의에 이르면 금융위기 이후 정부 구제를 제외하고 최대 규모의 은행 인수 거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함
 - 전문가들은 RBS가 RBS시티즌스의 IPO를 통해 최소 1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
- 한편, RBS는 올해 말 RBS시티즌스의 일부 지분에 대해 기업공개(IPO) 실시 후 2016년 말까지 완전히 분사시킬 것으로 계획

2) 삼성, 일본내 스마트폰 특허 소송서 애플에 패소

- 지난 3월25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이 패소했다고 보도
 -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기기에서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삼성의 특허범위 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
 - 도쿄지법은 애플 일본법인이 삼성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삼성은 특허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